

19세기 전반기 한문학의 변모 양상

안 순 태 *

-
- | | |
|------------------------|---------------|
| 1. 머리말 | 4. 對淸意識의 변모 |
| 2. '속화/저변화'와 '고급화/전문화' | 5. 지식 정보의 집대성 |
| 3. 私的 領域에 대한 관심의 확대 | 6. 맺음말 |
-

초록: 본고는 19세기 전반기 한문학이 이전 시기의 어떤 면모를 계승하거나 심화하였는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이게 되었는가를 이 시기 경화세족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본 것이다. 본고에서는 19세기 전반기 한문학의 특징을 크게 네 가지로 살피고 있다. 첫째, '속화/저변화'와 '고급화/전문화'가 심화되었다는 점이다. 전자는 주로 민중들이 향유하던 판소리나 소설, 가사 등에 한시 어구가 활발히 삽입되는 현상으로 나타났고, 후자는 김정희나 신위 등과 같은 이들의 고급한 예술론으로 나타났다. '속화/저변화'와 '고급화/전문화'는 각각 따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었지만 '통속화'와 '전문화'가 동시에 확인되는 예가 있듯이 그 구체적 양상은 상당히 복잡하다. 둘째, 사적 영역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다는 점이다. 젊은 시절부터 雅趣를 중시하며 고동서화 취미를 향유하던 남공철이 중년기 이후, 즉 19세기에 들어서면서 개인적 공간에서 고동서화 취미를 향유하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심상규의 가성각에서 보듯 사적 영역을 구축하고 그곳을 기반으로 개인적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이 어렵지 않게 확인된다. 셋째, 대칭의식의 변모이다. 19세기에 도 여전히 대명리론을 강고하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었고, 대개는 관념적 명분론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명리론의 입장에서 서 있었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더 이상 실익 없는 명분론에 매달려 있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김노겸의 예에서 보듯 사실상 대명리론의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 넷째, 총서와 같은 문헌의 집대성 분위기가 고조된 점이다. 19세기의 이러한 문헌 집대성 열풍의 배경은 첫째, 고증학에 기댄 수많은 총서류가 간행되던 淸의 학문적 분위기로부터 받은 영향, 둘째, 18세기에 유행한 고동서화 취미에서 싹튼 細瑣한 것에 관심, 셋째, 서책의 양이 상당히 축적되던 19세기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분위기의 팽배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총서류의 간행과 문헌의 집대성은 한문학의 외연을 확장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풍부해진 지식정보의 체계화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순문학적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교수.

성취도가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19세기 한문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것들은 대개는 이전 시기의 것을 계승, 심화한 면모가 두드러진다. 19세기 한문학을 퇴영적인 것으로 치부하기보다는 위와 같은 면모들을 보다 면밀히 살펴 그 의의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며 당시 시대정신의 한계와 근대 전환기 직전 단계에서 한문학이 감당해야 했던 문제들 또한 분명히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핵심어 : 19세기, 京華世族, 南公轍, 沈象奎, 충서류, 대청의식, 사적 영역, 통속화, 저변화, 고급화, 전문화

1. 머리말

본고는 19세기 전반기 한문학이 이전 시기의 어떤 면모를 계승·심화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떤 새로운 면모를 보이게 되었는가를 남공철·이상황·김조순·심상규 등 18세기 후반 내지 19세기 전반에 활동한 경화세족들의 예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동안 문학 연구자들 사이에서 각광을 받아온 시기는 18세기다. 영조·정조로 이어지는 문화융성기에 활동한 수많은 문인들은 진지하고도 발랄하고 참신한 성과물을 축적하였고 이는 연구자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였다. 그간 충분히 조명받은 18세기 문인에 대해서, 혹은 아직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이 시기 문인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18세기 한문학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活況이다. 그에 반해 19세기 한문학은, 문헌자료는 풍부하지만 여전히 발굴되지 않은 작가들이 산재해 있고 일견 퇴영적으로 보이는 자료들이 상당수라 18세기 문학에 비해 연구자들의 관심도 크지 않은 편이다. 20세기 근대 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풍성한 것까지 고려하면, 19세기 문학은 마치 18세기와 20세기 사이의 暗轉과도 같다 할 것이다. 축적된 연구 성과도 18세기 한문학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아직 그 구도조차 명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필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19세기 한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에 기댄 몇몇 斷想들일 수밖에 없다.

문학사를 포함하여 우리 역사는 근대전환기, 즉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

른바 ‘除舊布新’의 역사적, 문명론적 지각변동을 겪게 된다.¹⁾ 문명사 이해를 위한 편의적 개념인 ‘世紀’가 바뀐다고 역사와 문화가 큰 변동을 겪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도’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우리 역사와 문화 전반은 激動을 겪게 되었다. 그런데 18세기에서 19세기로 전환되는 시점에서도 우리 문학사는 ‘우연히도’ 적지 않은 변화를 겪은 것처럼 보인다. 정조의 서거(1800), 순조의 등극(1800)과 세도정국의 고착화라는 政局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조의 문체반정(1792), 18세기 문학의 상징적 인물 朴趾源의 죽음(1805) 등은 세기전환기에 나타난 문학방면에서의 변화를 가늠케 하는 상징적인 사건들이다. 세기 전환기에 일어난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19세기 문학과 20세기의 문학이 단절된 것처럼 보이듯 18세기 문학과 19세기 문학도 전혀 다른 성격을 보이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다. 물론 19세기 들어 새롭게 보이거나 심화된 특징도 있지만 엄연히 19세기 문학은 18세기 문학의 기반 위에 있다. 필자가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점이다.

18세기에서 19세기로 전환되는 시기의 문인들 가운데 본고에서 주목하는 이들은 南公轍(1760-1840), 李相瓚(1763-1841), 金祖淳(1765-1832), 沈象奎(1766-1838) 등의 경화세족이다. 이들은 모두 정조조에 초계문신에 선발되었으며 순조조 정국 운영을 주도하며 당대 문화의 첨단에 섰던 인물들이다. 생몰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들의 생애는 18세기와 19세기에 나란히 놓여 있다. 생몰년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보인 문학적 특징 또한 18세기적 특징과 19세기적 특징을 아울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우선 이들을 중심으로 19세기에 들어서 보인 한문학의 특징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18세기 말 내지 19세기 초 산문사를 古文과 小品文의 길항 구도로 파악하여 이 시기에 활동한 문인들을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 살핀 바 있다. 洪奭周(1774-1842) · 金邁淳(1776-1840) 등의 고문가 그룹, 南公轍(1760-1840) · 沈象奎(1766-1838) · 金祖淳(1765-1832) · 李相瓚(1763-1841) 등의 순조조 관각문인 그룹, 李鈺(1760-1812) · 沈魯崇(1762-1837) · 金鑪(1766-1822) 등의 소품문가 그룹이 그

1) 임형택, 2002 「수당 이남규와 그의 奏議에 대한 이해」,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327면.

것이다. 고문가들은 漢宋論爭에서 宋學을 절대 우위에 두는 입장이었고 道文一致를 내세우며 당송고문을 중시하고 명대 이후 문장을 폄하하였으며 논변류나 비지류를 선호하였다. 순조조 관각문인들은 한학과 송학의 절충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정통성리학을 송학으로 상대화하고 도문일치를 표방하면서도 道의 개념을 상대적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관각문자를 많이 지으면서도 소품문을 애호하였다. 소품문가들은 한송논쟁에 아예 관심조차 없었고 情의 표출을 중시하는 明代 문학을 애호하였으며 전통적인 글쓰기 대신 日記나 稗史, 題跋과 같은 폐사소품 성격이 농후한 글쓰기 방식을 택했다.²⁾ 본고에서 주목하는 이들은 이 가운데 순조조 관각문인 그룹이다.

18세기적 인물이자 19세기적 인물이라 할 수 있는 이들은 모두 정조조에 초계 문신으로 활동한 바 있고, 고동서화 취미를 향유하며 소품문과 소설을 애호하였고,³⁾ 순조조에 정국 운영을 주도하는가 하면 燕行을 통해 중국 인사들과 교류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18세기에서 19세기로의 세기 전환기에 경화 문화를 주도하던 이들의 문예 취향을 중심으로 19세기 전반기 한문학의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속화/저변화’와 ‘고급화/전문화’

그간의 19세기 한문학에 대한 연구는 몇몇 문인들에 치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2) 이상에 대해서는 안순태, 2015 『남공철 산문 연구』, 월인의 제6장 참조.

3) 남공철이 고동서화 취미를 향유하고 소품문을 애호한 대표적인 인물임은 이미 익히 알려진 바다. 이에 대해서는 김성진, 1998 「朝鮮後期 文人들의 生活相과 小品體 散文」,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김도련 편, 태학사 참조. 한편 정조의 문체반정 때 이상황과 김조순이 예문관에서 소설을 읽다가 적발되어 고초를 겪은 일이 있다. 이상황은 신본 폐설 보기를 즐겨 그가 사역원에 근무할 때 중국에 다녀오는 역관들이 다투어 폐설을 사다 바쳤다는 일화는 유명하고(李裕元, 『林下筆記』 권27) 김조순은 『우초신지』를 본떠 김려와 함께 『우초속지』를 내기도 하였다.

19세기 전, 중반기의 丁若鏞, 申緯, 金正喜, 金邁淳, 趙秀三, 趙熙龍, 洪良浩, 洪奭周, 洪吉周, 洪敬謨 등,⁴⁾ 그리고 19세기 후반기의 이른바 韓末四大家(姜瑋, 李建昌, 黃玿, 金澤榮)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흥미로운 점은 丁若鏞(1762-1836)은 주로 19세기 인물로 다루어지지만 비슷한 시기의 남공철 등은 18세기적 인물로 다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정약용의 저작이 19세기 이후 유행기에 주로 이루어진 데 반해 남공철 등은 정조의 문체반정, 연암일파와의 교류 측면에서 주로 조명을 받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한편 19세기 중엽 이후 작가들에 대한 연구가 턱없이 부족한데, 그 까닭은 일제강점기에 한문학사를 정리할 때 19세기 중엽 이후를 ‘近世 혹은 當代’로 간주하고 ‘근세 및 당대의 문체를 직접 거론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역사서술 관념에 따라’ 그 시기 작가나 작품을 언급하지 않은 것도 주요 요인으로 생각된다.⁵⁾

19세기 예술사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는 19세기 한문학이 18세기의 발달하고 참신한 경향에 비해 ‘안일하고 퇴영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⁶⁾ 이는 이전 시기의 경향을 거의 그대로 좇기만 하면서 문학 방면에서 적극적으로 活路를 모색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워낙 참신하고 발달했던 직전 시기 문학과 대비되어 19세기 전반기 한문학이 더욱 ‘퇴영적’으로 비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간 19세기 한문학의 구도는 크게 두 가지 시각으로 파악된 바 있다. 19세기를 시기별로 구획하여 각 시기의 특징을 제시한 시각, 그리고 시기별 구획 없이 19세기全般 한문학의 경향성을 파악한 시각이 그것이다.

심경호 교수는 순조조와 헌종조, 그리고 19세기 후반과 구한말 등 19세기 한문학의 특징을 시기별로 파악한 바 있다. 순조조 문단은 성리학을 기반으로 보수적

4)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편, 2006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 지형도』, 한양대 출판부에서 19세기 지식인들로 홍양호, 조수삼, 신위, 유희, 홍석주, 홍경모, 홍길주, 최한기 등을 다루고 있다. 이 책에서는 이들을 관통하는 19세기 지식인들 혹은 19세기 문인들의 경향성보다는 개별 지식인의 세계관에 대해 고찰하고 있다.

5) 심경호, 2000 「19세기 한시의 전개에 대한 일 고찰」, 『한국문학연구』 1, 고려대 한국문학연구소, 235면.

6) 임형택, 1995 「18-19세기 예술사의 성격」, 『한국학연구』 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22면.

문학관을 수정하는 선에서 문학적 성취를 이룬 이들(洪奭周, 金邁淳, 鄭元容), 현실주의 문학을 발전시킨 실학과 지식인들(丁若鏞, 李學逵), 전문적 문인 취향의 작가들(申緯, 趙秀三)의 세 그룹으로 파악하였고, 현종조는 강화학파를 중심으로 한 양명학이 민족적 특성을 강화시킨 시기라 하였다.⁷⁾ 이러한 구도는 시기별 작가들의 특징을 집적하여 제시한 것이어서 개별 작가들의 실상과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다.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19세기 한문학의 경향성을 거시적으로 파악한 두 번째 구도이다. 박무영 교수는 19세기 문학이 ‘속화/저변화’와 ‘전문화/고급화’의 길을 걸었다 하고 민중적 기반을 지니고 유통되었던 김삿갓의 한시, 사대부작가의 한문소설 창작 활성화, 한시가 삽입된 한글소설의 성행, 가사나 판소리 등에도 한시 구절이 삽입되는 현상, 『북상기』나 『백상루기』와 같이 남녀 성애를 주제로 한 희곡 작품의 출현 등을 19세기 문학의 속화/저변화 현상을 보여주는 예로 들고 있다. 또 김정희의 예술론이나 심미적 공간인 詩境을 추구한 申緯(1769-1845)의 한시 등은 전문화/고급화의 길을 걸었다고 하였다.⁸⁾ 이러한 구도는 1990년대에 제시된 견해를 종합,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이미 19세기에 ‘전문성을 기준으로 고급예술과 대중예술로의 분화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연구⁹⁾가 있거니와 민중성의 대두와 함께 소설을 중심으로 한 통속화 경향, 김정희를 중심으로 한 예술의 고급화 경향이 19세기 예술사의 특징으로 제시된 바 있다.¹⁰⁾

그런데 19세기 한문학을 ‘속화/저변화’, ‘전문화/고급화’의 구도로 파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고급문화였던 한문학이 정확한 한자음을 분간할 수준이 안 되는 안방 여성들 사이에서 언문으로 향유되었던 것은¹¹⁾ ‘속화/저변화’의 양

7) 이후 19세기 후반은 한문학의 정통성을 확인한 衛正斥邪派(李恒老, 許傳 등), 시를 통해 내부 문제 혁신을 주장한 개화사상가(朴珪壽)로, 한말에는 경세의식과 우국의식을 표출한 한말사대가가 주목할 만하다고 하였다. 심경호, 앞의 논문, 235-237면 참조.

8) 박무영, 2008 「19세기 한문학의 계열과 논점」,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9) 고미숙, 1994 「19세기 시조의 대중화 양상에 대한 연구」, 『시조학논총』 10, 한국시조학회, 53-55면.

10) 임형택, 앞의 논문.

11) 박무영, 2001 「金浩然齋의 생애와 ‘호연지유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

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 서울이 아닌 지방에까지 서울의 유행이 전파되었다든가, 여성의 문집이 편찬되는 예 등을 통해 저변화를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한편에서 ‘속화/저변화’가 일어나고 다른 한편에서 ‘전문화/고급화’가 일어났던 것만은 아니다. 즉 ‘속화/저변화’와 ‘고급화/전문화’가 각각 따로 나타나기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가령 洪吉周가 몇몇 시문에서 문학을 ‘진지한 주제의식이나 미학적 완성도에 대한 추구에서 떼어내 순수한 놀이로 만들고 즐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등¹²⁾ 속화와 고급화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예도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속화’와 ‘저변화’, ‘전문화’와 ‘고급화’라는 용어 자체가 지칭하는 대상과 의미도 다소 모호하다. 그럼에도 이전까지 한정된 계층이 독점하고 있던 한문학이 다양한 방식으로 넓은 계층에서 통용된 것이라든가 이전에 확인하기 어려웠던 높은 수준의 예술론이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사실을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구도는 19세기 한문학을 특징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9세기 전반기 한문학을 ‘속화/저변화’와 ‘고급화/전문화’의 구도로 볼 때 남공철이나 이상황, 김조순, 심상규의 문학적 지향과 실제 창작물들은 ‘고급화/전문화’에 기울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슷한 시기 申緯나 김정희, 이상적, 오경석, 조희룡 등과 같은 이들의 지향도 같은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 ‘고급화/전문화’와 관련하여 우선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남공철의 서화발미다. 남공철은 그의 문집 『金陵集』 권23~권24에 걸쳐 서화발미 116편을 수록하고 있다. 남공철의 서화발미는 모두 중국 서화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각각의 작품에 대한 자신의 품평을 덧붙이고 있다. 다수의 서화를 접하였던 것, 한번 감상한 작품에 대한 품평을 남겼던 것으로 그가 서화에 대한 깊은 관심과 높은 감식안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화발미와 함께 남공철이 ‘고급화/전문화’에 경사된 취향이 문학으로 구현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소는 그의 ‘雅趣’이다. 남공철은 19세기 전반기 문예의 특징인 아취와 관련해 ‘비루하고 속되어서 高雅하지 못하면 趣가 없

성문학회, 121면.

12) 박무영, 2008 「19세기 한문학의 계열과 논점」,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61면.

다¹³⁾고 하기도 하고 ‘雅로써 趣를 드러낸다’¹⁴⁾고 하기도 하였다.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남공철은 趣를 雅와 긴밀하게 관련짓고 있다. ‘雅趣’란 高雅한 분위기, 혹은 高雅한 감정상태를 뜻하는데, 雅가 俗과 상대되는 말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취는 근본적으로 脫俗性을 내재하고 있다. 이 시기 문화에서 ‘탈속성’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은 고동서화 취미와 소품문이다.¹⁵⁾ 고동서화 취미를 적극적으로 향유하고 소품문에 관심을 기울였던 남공철이 그의 문학에서 雅趣를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는 남공철뿐만 아니라 이상황, 김조순, 심상규도 마찬가지다.¹⁶⁾

남공철의 고동서화 취미나 소품문에 대한 애호는 그의 젊은 시절, 곧 18세기부터 이루어지던 것이었다.¹⁷⁾ 그러니 고동서화나 소품문을 통해 아취를 추구하던 경향은 이미 18세기부터 있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남공철은 그의 尺牘과 題跋, 그리고 記文을 통해 雅趣를 표출하고 있는데, 전기(곧 18세기)에는 주로 척독과 제발을 활용하여 아취를 구현하고, 후기(곧 19세기)에는 기문을 활용하여 아취를 드러내고 있다. 그는 젊은 시절 주로 척독과 제발을 통해 벗들과의 시주회나 문주회를 형상화함으로써 아취를 드러내고 있다. 다음은 어려서부터 남공철이 從遊하던 吳允常(1746- 1783)에게 보낸 척독이다.

13) 남공철, 「四君子文鈔序」, 『금릉집』 권11: “陋俗而不雅也…(중략)…不雅則無趣.”

14) 위의 글: “精以立其法, 深以養其氣, 雅以著其趣.”

15) 소품문과 고동서화 취미에 대해 강명관은, 실용성이 탈각되고 심미적 특성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강명관, 2007 「이덕무 소품문 연구」,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226-227면 참조.

16) 가령 김조순은 玉壺精舍를 조성하여 다량의 장서와 골동품을 구비해 두고 아취로운 생활을 누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황정연, 2015 「金祖淳을 통해 본 19세기 安東金門의 골동서화에호와 감상 풍조」, 『대동한문학』 43, 대동한문학회 참조.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심상규 또한 가성각을 조성하여 俗氣없는 취미생활을 즐겼다.

17) 주지하다시피 남공철이 대책문에 소품체를 구사했다는 이유로 견책을 받은 것이 문체반정이고, 남공철은 문체반정의 핵심 인물이다. 정조는 문체반정 과정에서 젊은 문신들이 소품문을 애호하고 고동서화 취미를 즐기던 것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金祖淳, 李相璜, 南公轍 등 당시 초계문신들(이들은 순조조에 정국 운영의 핵심 인물이 된다)이 견책을 당하였고 소품문가로 알려진 李鈺 또한 처벌을 받았다.

밤새 안녕하신지요? 崔士龍 어른이 전하기를, 21일부터 鍾巖의 別業으로 나가 계신다고 하니 날이 좀 서늘해지기를 기다렸다가 한번 들러 보려 합니다. 산수에서 술 마시며 시 짓는 즐거움은 선배들의 풍류를 이을 만하니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通園 俞伯翠가, 저한테서 노닐 계획을 듣고는 따라가려고 하더군요. 伯翠는 경사에 널리 통했고 더욱이 명나라 天啓와 崇禎 사이의 일들을 잘 알고 있으니 산빛과 물소리 속에 이르게 하여 그의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또한 하나의 아취로운 일일 것입니다. 다만 그가 虞山의 글을 좋아하는 것이 곧 고치기 어려운 버릇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들이 마땅히 충고해서 순정한 데로 돌아오게 해야 할 것입니다.¹⁸⁾ (밑줄-인용자)

척독의 수신자 오윤상은 곧 吳載純의 아들이자 吳璵의 손자로 남공철의 고조부 남용익 대부터 집안끼리 교류하였기에 남공철이 어려서부터 종유하던 인물이다. 남공철은 오윤상, 오희상, 오연상 형제 가운데 오윤상과 가장 가까이 지냈다. 伯翠는 곧 俞晚桂(1755-1788)로, 종암 별업에서의 시주회 소식을 듣고 유만주도 따라가겠다고 한다면서 그곳에서의 시주회 광경을 아취롭게 형상화하고 있다. 또 李德懋(1741-1793)에게 보내는 다음 척독에서도 벗들과의 모임의 분위기를 '雅趣'에 중점을 두어 서술하고 있다.

며칠 院中에 이불을 가지고 가서 숙직을 할 계획인데 자못 한가하여 공무가 적을 듯하니 연락을 기다려 한번 들르심이 어떠한지요? 朴仲美 선생이, 족하가 오신단 말을 들으면 또한 당연히 합석하실 것입니다. 게다가 열하에서의 기이한 광경과 별난 이야기에 淸脾錄 한 부까지 더해지게 한다면 또한 하나의 아취로운 일이겠지요.¹⁹⁾

남공철은 젊은 시절(주로 10대 후반과 20대 전반) 연암일파와 활발히 교류하였는데 그가 연암일파 가운데 특히 가까이 지냈던 것은 이덕무였다. 남공철은 1784년(정조8) 음직으로 익위사 세마에 나아간 이후 같은 해에 사옹원 주부가 되었는데

18) 남공철, 「與吳士執」, 『금릉집』 권10 : “夜回起居萬重. 崔士龍丈傳欲自二十一日, 出住鍾巖別業, 稍俟日氣益涼, 約一往過. 溪山文酒之樂, 可能繼先輩風流, 預可喜也. 通園俞伯翠因僕聞遊事, 欲往從之. 伯翠博涉經史, 尤習於啓禎間遺事, 致之山色水聲之中, 聞其議論, 亦一趣事. 但其好虞山之文, 便成痼癖, 此則吾輩當忠告, 使之返醇可也.”

19) 남공철, 「與李懋官」(二), 『금릉집』 권10 : “計於數日持被院中, 頗靜閑少公事, 俟相報枉臨如何? 朴仲美先生聞足下來, 亦宜盍簪. 益得熱河奇觀異聞, 俾博淸脾一部, 亦一雅事也.”

대 위 편지는 사옹원 주부로 있을 때 이덕무에게 보낸 것으로 보인다. 남공철이 사옹원에서 숙직할 때 이덕무가 찾아오면 틀림없이 박지원도 그 자리에 참석할 것이라고 하며 박지원의 열하 奇談과 이덕무의 청비록 이야기에 그 자리가 아취로울 것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글들은 남공철이 젊은 시절(각각 1783년-24세 이전, 1784년-25세) 지은 것으로, 이 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남공철이 벗들과 모여 술을 마시거나 시를 짓거나 혹은 기이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을 雅趣롭게 형상화하고 있는 점이다.²⁰⁾ 젊은 시절 남공철이 지은 글 가운데 이렇게 雅趣가 두드러진 것은 대부분 벗들과의 모임에 대한 글에서였다. 남공철이 추구한 雅趣는, 그러므로 19세기 전반기 예술사의 한 축인 ‘속화/저변화’와 거리가 있는, 높은 예술적 감식안에 기반한 고급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남공철의 문학 활동에서는 ‘고급화/전문화’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18세기에 이어 19세기까지도 한문학의 주 담당층은 경화세족을 중심으로 한 양반사대부 및 일부 중인 계층이었으며 그들의 지향은 대개 ‘속화/저변화’보다는 ‘고급화/전문화’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한문학의 ‘속화/저변화’는 앞서 홍경모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고급화/전문화’와 동시에 일어나기도 했다. 그러나 대개 ‘속화/저변화’는 경화세족을 중심으로 한 개별 문인에게서 확인되기보다는 가령 판소리사설에서 수많은 한시 어구를 활용하고 있듯이²¹⁾ 대중적 향유물이었던 소설이나 판소리사설에서 확인된다.

문제는 19세기 전 시기의 한문학을 ‘속화/저변화’와 ‘고급화/전문화’의 흐름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이다. 필자의 短見으로는 이러한 구도는 19세기 중반까지의 한문학을 설명하는 데는 유용하다 하겠으나 19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구도로 파악하기

20) 남공철의 척독과 제발에 드러나는 雅趣에 대해서는 안순태, 2015 『남공철 산문 연구』, 월인의 제3장 참조. 한편 「박산여묘지명」(『금릉집』 권17)과 같은 글에서는 박제가, 이덕무, 박지원, 박남수 등의 벗들과 碧梧桐館에 모였을 때의 『열하일기』 낭독회 또한 아취롭게 형상화하고 있다.

21) 판소리사설에서의 한시 어구 활용양상에 대해서는 안순태, 2015 「〈열녀춘향수절가〉의 한시 어구 활용양상 연구」, 『한국한시연구』 23, 한국한시학회 참조.

어려운 특징들, 이를테면 우국문학과 같은 것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물론 문학 전반에서의 ‘속화/저변화’는 19세기 전 시기에 걸쳐 일어난 현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고급화/전문화’ 경향이 19세기 후반에도 지속되었던가, 그것이 하나의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을 만큼 빈번히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인가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고찰이 필요하다 하겠다.

3. 私的 領域에 대한 관심의 확대

어떤 세기 전환기도 마찬가지로 18세기에서 19세기로의 전환기에도 이전 시기의 특징을 계승, 심화시킨 면과 새롭게 나타난 특징이 공존했다. 1894년 갑오개혁으로 한문이 공식언어 자격을 국한문혼용체에 내어준 뒤에도 20세기 초반까지 한시나 한문의 창작은 지속되었던 것처럼, 19세기 전반기에도 이전시기부터 확인할 수 있는 고동서화 취미 향유와 소품문에 대한 애호가 이어지고 있었다.

남공철, 김조순 등 순조조 관각문인 그룹은 한송절충론을 따르면서 소품문을 애호하였다. 조선사회에서 관각문인은 국가의 文風을 주도하는 존재다. 그런 관각문인이 성리학을 상대적인 학문으로 인식하고 경세문이 아닌 소품문을 애호하였다는 것은 18세기와는 다른 상징적인 면모라 할 수 있다.²²⁾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 오면서 이들의 한문산문에서 간취할 수 있는 두드러진 변화는 바로 ‘雅趣’의 향유 방식 변화이다. 이미 18세기에 고동서화 취미 향유와 함께 문학에서 雅趣 추구 경향이 농후해졌으나 18세기의 아취와 19세기의 아취는 조금 다른 맥락에서 추구되었다고 할 수 있다.

22) 가령 黃景源·徐命膺·金鍾秀·吳載純 등과 같은 정조조 관각문인들은 文과 道를 분리하여 인식하고 일부 문인들은 道를 상대적인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변화의 단초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소품문을 향유하고 아취를 개인적·적극적으로 향유하는 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하였다. 정조조 관각문인의 문학관에 대해서는 안순태, 2010 『정조 연간의 文衡 연구』, 『한문고전연구』 20, 한국한문고전학회 참조.

가령 남공철이 중년 이후, 곧 19세기에 들어 지은 雅趣가 형상화된 글들은 이전 젊은 시절의 그것과 질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취를 형상화하는 데 주로 취하던 문체가 청년기(18세기)의 尺牘과 題跋에서 중년기(19세기)에는 記文으로 바뀐 것이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차이는 바로 ‘개인적인 차원’에서 雅趣를 향유하는 모습이 부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개인적인 차원’이라는 말에는 ‘개인의 공간’에서, ‘혼자’, ‘개인의 취향에 따라’ 등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남공철이 후기에 그의 산문을 통해 표출한 아취는 주로 그의 귀거래와 관련이 깊다. 남공철은 40세경부터 귀거래를 준비하여 경기도 광주 둔촌에 ‘又思潁亭’과 ‘玉磬山莊’을 마련하고 틈이 나는 대로 그곳에 들렀다. 그는 그곳에서의 생활상을 ‘혼자서’ 고동서화 취미를 향유하는 雅趣로운 것으로 구현하고 있다. 「又思潁亭記」의 다음 부분이 그 예다.

의양자의 집에는 고서 3천 권과 금석 유문 수십 종이 있다. 술 마시기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늘 술 한 병을 두었고, 타지도 않는 거문고 하나가 있었으며, 두지도 않는 바둑판 하나가 있었다. 비록 구양자의 풍성함만큼은 못 되지만 의양자에게 있어서는 또한 적지 않은 것이어서 이것들을 즐기면서, 늙어가는 것도 잊을 만했다.²³⁾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남공철이나 심상규, 이상황, 김조순 등 정조 연간에 초계 문신으로 활동하던 이들이 순조조에 들어 정국을 주도하면서 향유한 문화는 대단히 탈속적이고 개인적인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이 젊은 시절부터 친숙하게 향유하던 고동서화 취미와 소품문 탐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었다. 가령 심상규는 조선후기의 가장 화려한 집 嘉聲閣을 다음과 같이 조성한바, 여기에서도 우리는 순조조 관각문인들의 아취 추구 양상의 달라진 면모를 확인할 수 있다.

23) 남공철, 「又思潁亭記」, 『금릉집』 권12 : “宜陽子家, 有古書三千卷金石遺文數十種. 性不喜飲, 而常置酒一壺, 有一張不彈之琴, 有一局不着之碁. 雖不如歐陽子之多且富, 而於宜陽子, 亦不少, 足以樂而忘老也.”

文肅公 斗室 沈象奎는 경성 松巷의 북쪽에 저택을 지었다. 바깥채에서 굽이굽이 이어져 斗室이 된다. 여기를 지나면 난간과 서까래가 얽히고설켜 正堂이 되는데 편액을 嘉聲閣이라 하였다. 覃溪 翁方綱이 80세에 쓴 것이다. 가성각 동쪽에는 기둥이 높다랗게 꺾어져 북쪽으로 서 있는데 안이 빈 虛樓와 이중구조의 複閣이다. 또 그 서북쪽은 붉은 담장이 뻗어 있는데 벽돌을 쌓아 둥근 문을 만들고 사이사이 구들을 놓은 방을 두었는데 높은 방과 낮은 방이 있다. 또 그 뒤에는 一堂, 二堂, 三堂을 나란히 두었다. 또 그 뒤에는 續堂이 있다. 책 4만 권을 쌓아두었는데 經史子集을 나누어 소장하였다. 가운데는 影堂이다. 그 선대인 涵齋公 沈念祖의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 붉은 휘장으로 막고 바깥에 香案을 두었다. 가성각 앞에는 작은 집 몇 칸을 만들어 奇花異草를 빙 둘러 심었다. 뜰에는 종려나무를 심었는데 그 크기가 문설주에 나란하다. 또 상아로 만든 상과 통유리로 된 벽이 있는데 모두 우리나라에는 없는 것들이다. 그 나머지 기물이나 완상품은 위치가 가지런하여 법도가 있다. 방에는 문양이 들어가 있는 창과 아름답게 새긴 난간이 있는데 모두 정묘하고도 신기하다. 발과 휘장, 쾌안, 깔개는 정갈하고도 고즈넉하며 호젓하여 밖에서 보면 마치 신선의 집 같았다. 담벽이나 측간이라도 더럽거나 갈라진 데가 있으면 몸이 지저분한 듯이 여겼다.

공은 성품이 단아하고 엄중하여 음악과 여색을 좋아하지 않고 소란스런 소리를 듣는 것을 싫어하였기에 집 안팎이 엄숙하였다. 곁에 있는 자들은 말을 함부로 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웃고 떠들 수도 없어서 모두 숨을 죽이고 발을 끌고 다녀야 했다. 평상시에는 안으로는 서양의 자명종을 휘장 안에 비치해 두고, 밖으로는 계단 위에 해시계를 비치하고는 아침밥과 점심밥을 모두 정해진 시각에 먹었는데 지팡이를 짚고 출입하면서 규정을 어기지 않는 일이 없었다. 비록 중국 고관대작의 호사와 같지는 못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비교할 만한 것이 거의 없다.²⁴⁾(밑줄-인용자)

홍한주는 嘉聲閣이 19세기 경화세족 문화의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집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렇듯 가성각은 화려했던 경화세족의 주거문화를 대표하는 존재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위 글에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온 것이 있으니 바로 이 가성각이라는 공간은 이전 시기 吳璦 집안의 종암동 별업 東亭이나, 박지원이 벗들과 열하일기를 읽던 朴南壽의 碧梧桐館 등의 공간과 질적인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저 집 안에 들인 물건들의 종류나 화려함의 차이만이라 할 수 없다. 이전 시기 한문학에서 雅趣가 두드러지게 형상화된 공간은 시주회나 문주회의 공간이었다. 吳璦의 東亭, 朴南壽의 碧梧桐館은 여러 사람이 모여 술을 마

24) 洪翰周, 『智水拈筆』,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435-436면.

시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를 짓거나 옛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었는데 심상규의 가정이나 남공철의 우사영정, 옥경산장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이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조성된 공간에서 혼자 호젓하고 고즈넉하게 자신의 취향을 만끽하는 문화가 확산되었고, 그것이 문학적 형상화의 대상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밑줄 친 부분은 바로 그런 면모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서술이다.

18세기와 19세기를 관통하는, 京華 문인들의 취향은 고동서화 취미라 할 수 있다. 정조가 고동서화 취미와 소품문을 경계하며 문체반정까지 일으켰던 것은 주자학의 절대적 권위가 무너지고 經世學에 힘써야 할 관료들이 脫俗의인 취미에 몰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동서화 취미와 소품문, 소설 애호는 통제할 수 없는 흐름이었고 정조 사후 순조조에 들어서 그러한 ‘위로부터의 엄격한 사상 통제’는 상당 부분 느슨해지게 된다.²⁵⁾ 그에 따라 19세기 초반에는 예술의 ‘고급화/전문화’ 경향과 함께 ‘公的 領域’과 ‘私的 領域’을 뚜렷이 구분하고 최소한 사적 영역에서는 ‘어떻게 하면 인생을 아름답고 풍부하게 누릴 것인가’ 하는 화두에 몰두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⁶⁾ 이와 같은 문인들의 아취 추구는 19세기 들어 ‘사적 영역’ 구축과 ‘개인의 취미 생활’ 향유로 귀결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구체적 개인 공간의 탄생, 그 개인의 私的 취향이 그 공간에 투사된 점, 그것이 문학적으로 형상화되었다는 점이 아닐까. 이를 (그럴 필요도 없지만) 곧바로 서구적 근대 개념에 연결 짓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확실히 이전 시기의 문학적 공간과는 변별되는 특징임에는 분명하다. 물론 19세기로 들어섰다고 해서 대부분 문인들에게서 ‘개인적 차원’에서의 고급한 예술 향유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남공철이나 심상규 등의 예는 19세기 들어 사적 영역에 대한 관심과 그것의 문학적 형상화가 무게감 있게 나타나기 시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예라고 생각한다.

25) 이현일, 2010 「19세기 한시의 소품취」,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364면.

26) 위의 논문, 365면.

4. 對淸意識의 변모

16세기 주자학이 활발히 수용되면서 주자의 尊華攘夷의 명분론에 기반한 尊明事大가 본격화되었다. 이후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명이 조선에 援兵을 보낸 일로 조선 지식인들은 명에 대해 再造之恩의 부채의식을 갖게 되었다. 이로 인해 대명의리론이 강화되었고, 17세기 전반 명이 멸망하면서 조선은 명의 유일한 계승자로서의 강한 문화자존의식을 갖게 되고 북벌론 또한 힘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들어 북벌의 허구성을 지적하거나 청의 중원 지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등 전통적 대명의리론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 18세기 홍대용이 대명의리론을 근본적으로 회의하면서 대명의리론은 큰 전기를 맞게 되었다. 19세기에는 북학이 대세를 이루며 급기야 대명의리론이 암묵적으로 폐기되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물론 17세기 후반 이후 조선 말기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강고하게 대명의리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시기에 따른 대명의리론의 추이는 대체로 위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행과 관련한 대명의리론의 전개 양상, 혹은 對淸意識의 변모 양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임형택 교수는 17세기 내지 19세기 연행의 역사를 ‘흔들린 조공질서의 시기’로 파악하여 크게 네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제1기는 ‘명청 교체기, 해로 사행기’로 1636년 이전에 해당하고 제2기는 ‘반청 의식에 사로잡힌 시기’로 1636년 내지 영조 이전에 해당하며, 제3기는 ‘실학적 각성의 시기’로 영정조대를 중심으로 한 시기이고 제4기는 ‘조공체제의 해체기’로 19세기 중반 내지 1894년에 이르는 시기로 보았다.²⁷⁾ 비슷한 시기에 안대회 교수는 연행사들에게 준 送序를 분석하여 17세기 내지 19세기 문인들의 연행을 보는 시선 변화를 세 단계로 구분한 바 있다. 즉 인조조~경종조에 해당하는 1단계는 ‘청에 대한 적개심과 부정적 시선이 만

27) 임형택, 2010 「17~19세기 동아시아 상황과 燕行·燕行錄」, 『한국실학연구』 20, 한국실학학회.

연하던 시기', 영조조~정조조에 해당하는 제2단계는 '청나라 문명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던 시기', 순조조~조선 말에 해당하는 3단계는 '급변하는 국제 정세 파악에 연행을 활용하던 시기'로 파악하였다.²⁸⁾ 각각 4개 시기와 3개 시기로 대청의식의 변모를 구분하였지만 임형택 교수가 설정한 제1기와 제2기는 안대회 교수가 설정한 1단계에 해당하므로 두 시기 구분은 대체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19세기는 '실학적 각성의 시기'와 '조공 체제의 해체기'(임형택), '급변하는 국제 정세 파악에 연행을 활용하던 시기'(안대회)에 해당한다.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19세기 연행에 대한 이 두 가지의 관점은 '대명의리론은 차치하고 실학적 각성을 통해 청의 문명을 배우자'는 시기로 요약할 수 있다. 즉 '대명의리론의 폐기'와 '청의 문물 도입'이 이 시기에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9세기에 나타난 '대명의리론'에 대한 입장과 '청의 문물 도입'에 관한 입장은 그 양상이 상당히 복잡하다. 단순히 대명의리론을 폐기하고 청의 문물 도입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고 단선적으로 말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²⁹⁾ 정통 성리학을 표방하며 19세기 후반까지 존명의식을 견지하던 李恒老(1792-1868)와 같은 이들도 있었고, 18세기부터 지전설로써 중화사상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청의 선진 문물을 배우자고 주장한 洪大容(1731-1783)과 같은 학자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의 선진 문물을 배워야 하며 연행을 선진 문물 도입과 국제 정세 파악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었다.

문제는 대명의리론이었다. 박지원을 중심으로 한 대부분의 북학파들은 청의 문물에 관심을 갖고 그것의 도입을 주장했지만 그들 역시 기본적으로는 대명의리론을 저버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의 대명의리론은 이전 시기에 비해 한층 관념적으로 퇴색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강력한 대명의리론과 적극적인 북학은 서로 모순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개의 문인들이 취한 태도는 청의 문물을 받아들여 대명의리 또한 완전히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정도의 것이었다.

28) 안대회, 2010 「조선 후기 연행을 보는 세 가지 시선」, 『한국실학연구』 19, 한국실학학회.

29) 가령 19세기의 대표적인 개화사상가라 할 수 있는 朴珪壽는 강렬한 尊明意識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는 김명호, 2008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169-172면 참조.

가령 그 가문적·정치적 배경으로 인해 대명의리론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던 남공철은 만한의 차별이라는 다소 실효성 적은 대명의리의 실천 방안을 내놓았고, 이마저도 실제 연행을 경험한 여타 많은 문인들 사이에서는 만한의 구분이 무모하다는 자각이 일기에 이른다.

남공철은 滿人이 세운 淸을, 조선이 再造之恩을 입은 明을 멸망시킨 원수이자 찬란했던 中華 문명을 파괴한 존재로 인식하고 淸의 조정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며 조공을 바치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다.³⁰⁾ 명이 멸망하고 청이 중원에 들어선 이후 상당수의 조선 인사들이 연행을 ‘수치스럽지만 부득이해서 행하는 질차’ 정도로 여겼다면 19세기 조선에서는 연행이 더 이상 부득이하게 행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었다. 18세기부터 수많은 연행사들이 직접 목도한 청의 선진 문물은 관념적 대명의리론에 회의를 불러일으켰고 19세기에 들어서 경화세족 사이에서는 사실상 대명의리론을 폐기하고 국가의 실익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이게 되었다. 이러한 주장은 金魯謙(1781~1853)에게서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金命喜(1788-1857, 秋史의 아우)가 1822년 子弟軍官 자격으로 연행할 때 김노겸은 族姪인 金命喜에게 연행의 기록 문제, 중국 인사와의 교류 문제, 중국 서적의 구입 문제, 대명의리 관련 문제와 관련한 내용의 序文을 써준 바 있다. 이 글에서 金魯謙은 춘추의리, 곧 대명의리는 한쪽으로 제쳐두고 일단 국제 정세로 인해 조선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³¹⁾ 19세기의 대청의식과 연행에 대한 태도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식에 기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본고에서 순조조 관각문인으로 남공철, 김조순, 이상황, 심상규 등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설명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 안에서도 서로 결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다. 이상황이나 김조순은 소설에 대해 우호적이었던 반

30) 남공철의 對淸意識에 관해서는 안순태, 2017 「남공철의 연행 체험과 대청의식」, 『국문학연구』 36, 국문학회 참조.

31) 金魯謙, 「送從姪性原隨家大人入燕並序」, 『性庵集』 권2 : “然則春秋義理, 且擔一邊, 燕京無事, 然後吾國亦庶乎其安矣. 世之談春秋者, 亦不可以不知此義.” 김노겸의 이 글에 대해서는 안순태, 「南公轍의 연행 체험과 對淸意識」, 『국문학연구』 36, 국문학회, 2017에서 자세히 다룬 바 있다.

면 남공철은 소설을 배척하는 입장에 있었다. 또 대명의리나 淸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도 남공철이 만한 차별론을 내세워 대명의리의 일단을 견지하려 했던 데 반해 김조순이나 서영보 등은 淸에 대해 남공철과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다. 김조순은 청의 국운이 쇠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그것이 조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는 견해를 내세웠고, 서영보는 백성들에게 유익한 것을 청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³²⁾ 즉 이들 순조조 관각문인들 사이에서도 더 이상 대명의리에 얽매이지 않고 청의 문물을 수입해야 한다거나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적잖이 일었던 것이다.

한편 19세기 중반 이후 연행록은 다음에서 살필 자료 집대성 과정에서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즉 필담에 근거한 자기 서술이 아니라 필담 그 자체를 옮겨 연행록의 대부분을 그렇게 구성하는 풍조가 성행했던 것이다.³³⁾ 이 또한 독창적 사유와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으며 자료에 대한 가치 평가도 이루어지지 않은 총서 및 유서 간행과 맞물려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이제 문인의 사유와 시각은 정제된 전통 시문 양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유서나 총서의 편집자적 시각을 통해서도 드러나게 되었다.

5. 지식 정보의 집대성

한문학의 終場이라 할 수 있는 19세기 후반 내지 20세기 초반, 한문학에 종사한

32) 안순태, 2017 「남공철의 연행 체험과 대청의식」, 『국문학연구』36, 국문학회, 226~227면.

33) 허방, 2016 「철종 시대 연행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58면. 이와 관련해 진재교 교수는 19세기 연행록의 특징으로 '당대 청조의 문화적 동향이나, 청조를 통한 세계의 흐름을 파악하려는 것보다, 건문 체험을 미시적인 시각으로 기술하는 등'의 변화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진재교, 2011 「조선조 후기 풍산 홍씨의 가학 전통과 19세기의 홍경모」,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이종목 편), 경인문화사, 478면 참조. 한편 19세기 후반, 특히 고종대에 이르러 비로소 필담의 내용에 국제 정세와 관련이 있는 내용이 많아지고는 있으나 서양의 무력에 이미 굴복해가고 있던 당시 淸人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신빙성 있는 국제 정세라는 것이 있었을지도 의문이다.

문인들이 힘을 쏟았던 것은 그간의 지식 정보를 집대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지식 정보의 집대성 경향은 18세기 후반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19세기 전반과 중반에 특징적으로 확인된다. 그 초반에는 ‘지식 정보의 재편집’ 경향이 특징적으로 확인된다.³⁴⁾ 가령 “앵무새나 비둘기, 담배 같은 개인적인 취미의 차원부터 천연두, 수레나 배 만드는 법, 무예실기 등 사회 현안이나 민생 또는 국방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분야”까지 다양한 분야를 대상으로 기존 지식의 편집이 18세기 후반기에 유행했다.³⁵⁾ 기존 지식을 집적하는 총서류 간행도 18세기부터 보이기 시작하였는데 이익의 『星湖僊說』도 그렇고 비록 세상에 선보이지는 못하였지만 박지원이 기획했던 『三韓叢書』, 이덕무가 기획했던 『小華叢書』 등은 18세기 후반 총서류에 대한 관심을 잘 보여준다. 총서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張混(1759-1828)이 자신이 살고 싶은 집에 들이고 싶은 書目을 제시한 「平生志」라는 글에서 『事文類聚』, 『淵鑑類函』, 『百家類纂』, 『漢魏叢書』 등 정평이 난 총서류를 빠짐없이 포함하고 있는데서도 확인할 수 있다.³⁶⁾

이러한 叢書·類書·選集類에 대한 관심은 19세기 들어 더욱 고조되는데 가령 大明義理의 이념적 공간인 가평 朝宗巖에 대한 기록을 모아 金永祿이 1875년 『朝宗巖志』를 편찬한 것,³⁷⁾ 오경석이 김정희의 『金石過眼錄』을 증보,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금석문을 집성하여 1858년 『三韓金石錄』을 편찬한 것³⁸⁾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풍조는 20세기 초반에도 이어진다. 1771년 李世澤이 청량산과 관련한 李滉의 고사를 모아 『淸涼志』를 편찬하고, 20세기 초 李晚興(1861-

34) 물론 우리나라 백과사전의 효시라 할 수 있는 총서류는 17세기 이수광의 『芝峯類說』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나 叢書·類書·選集類가 집중적으로 간행된 시기는 19세기라 할 수 있다.

35) 정민, 2007 『18세기 조선지식인의 발견』, 휴머니스트, 63-71면 참조.

36) 한영규, 2011 「19세기 경화세족의 學藝 취향과 晚明思潮」, 『인문과학』 48,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293면.

37) 이에 대해서는 이종목, 2008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사의당」,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570면 참조.

38) 『삼한금석록』에 대해서는 이성혜, 2014 「19세기 새로운 지식인의 출현-오경석론」, 『동양한문학회연구』 38, 동양한문학회, 156면 참조.

1904)가 이를 증보해 『吾山志』를 편찬한 것 등이 그 예다. 吳慶錫(1831-1879)이 서화예술에 관련된 정보를 집대성하였다는 『天竹齋筭錄』과 그 아들 오세창이 그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서화가들의 사적을 집대성한 『槿域書畫徵』(1917)도 그 예가 된다.

19세기에만 한정해 보더라도 李圭景(1788-?)의 『五洲衍文長箋散稿』, 尹廷琦(1814-1879)의 『東寰錄』, 李裕元(1814-1888)의 『林下筆記』, 趙在三(1808-1866)의 『松南雜識』, 崔漢綺(1803-1879)의 『明南樓叢書』 등의 총서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문헌의 집대성 작업은 20세기 초반까지 이어지는데 대표적인 업적이 바로 장지연의 『大東詩選』이다. 이 책의 간행은 여러 편집인들과 전국적인 분포의 조력자들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당시 한문학계에서 주목하던 성과였으며,³⁹⁾ 고대가요로부터 당대 시인의 시까지 두루 아우르려는 노력의 소산이었다.⁴⁰⁾

그러면 어째서 19세기에 들어서 문헌의 집대성 작업에 열을 올렸던 것일까? 고증학에 기댄 수많은 총서류가 간행되던 淸의 학문적 분위기로부터 받은 영향, 18세기에 유행한 고동서화 취미에서 싹튼 細瑣한 것에 관심, 서책의 양이 상당히 축적되던 19세기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분위기의 팽배 등이 이러한 총서·유서·선집류 간행 열풍을 일으킨 것이 아닌가 한다. 使行을 통해 淸의 학문적 분위기를 목도한 이들이나 서책을 접할 일이 많았던 이들이 특히 총서류 간행에 힘을 기울였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해준다.⁴¹⁾

39) 『大東詩選』에 대해서는 황재문, 2007 「《대동시선》의 편찬경위와 문학사적 위상」, 『진단학보』 103, 진단학회 참조.

40) 20세기 초반 叢書·選集類들 가운데는 19세기의 그것과 조금 다른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 가령 宋基植이 『詩學韻叢』(1918)을 간행했던 것은 우리나라 역대 한시를 韻目에 따라 수집, 정리하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와 함께 한시 초학자들의 교본으로 쓸 책이라는 목적도 지녔다. 즉 19세기까지는 양반사대부의 문예 취향이 중인들에게까지 확산되어 저변이 확대되고, 천주교나 동학 등 종교 전파 과정에서 문자를 습득하는 계층이 생겨나기도 했지만 모든 국민이 계몽의 대상이 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다. 그러다 보니 20세기 초에 이루어진 총서류, 총집류, 선집류 등 지식 정보의 집대성 작업 성과 가운데는 다분히 초학자 교육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이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이러한 총서·유서·선집류의 간행이 한문학에 기여한 점이 무엇인가이다. 사소한 자료에 대한 관심과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정리라는 점에서 한문학의 외연을 확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것이 한문학의 내질 변화에 기여한 바를 찾기는 쉽지 않다. 즉 수많은 정보를 취합하여 엮어내는 ‘편집자적’ 시각⁴²⁾만 있었을 뿐 그를 통해 한문학의 변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주체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몇몇 자료에서는 당시의 사회 개혁 문제를 거론하고 있으나 이것이 새로운 양식으로 진지하게 모색되었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 시기 지식 정보의 집대성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라면 原典의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짜깁기를 하듯 여기저기서 정보를 취합하는 데 급급한 예도 부지기수라는 것이다. 집대성해야 할 자료는 넘치고 어느새 그런 방식으로 집대성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 ‘독창적 사유와 판단’이 보이지 않고⁴³⁾ 집대성한 자료에 대한 ‘가치 평가를 주저’⁴⁴⁾하고 자료의 집적에만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19세기에 이루어진 지식 정보의 집대성 성과물들은 편집자의 관점을 넘어서는 ‘오리지널리티’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시기 총서류와 미시적 정보를 담고 있는 연행록 등은 당시 미시적 정보를 풍부하게 하는 학문 풍토를 조성했다는 의의가 있으나 정보의 홍수 사이에서 주체적이고 독자적인 관점을 기르지 못했다는 한계 또한 분명히 안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지식 정보의 집대성 열풍을 무작정 순도 낮은 양적 집적만으로 치부하기에는 조심스럽다. 그 저작들 자체만 놓고 본다면 오리지널리티를 발견하

-
- 41) 신병주, 2014 「조선후기 백과사전의 저술과 《五洲衍文長箋散稿》」,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42) 정민 교수는 19세기 저작들의 특징을 ‘저작자의 입장’이라기보다는 ‘편집자의 입장’에서 정리한 자료에 가깝다고 한 바 있다. 정민, 2011 「19세기 경화사족의 기록백과 정리백」,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이종목 편), 경인문화사.
 43) 안대회, 2011 「홍경모의 저작과 지적 경향」,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이종목 편), 경인문화사, 481면.
 44) 안대회, 2006 「《추재기이》의 인간 발견과 인생 해석」,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지형도』,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편, 한양대출판부, 101면.

기 어렵다 해도 그것이 다음 시기, 즉 19세기 말이나 20세기 초반에 이르러 체계적 저술을 산생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운하게도 격동하던 국제 정세는 차분히 그 시기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6. 맺음말

19세기 초중반기 한문학은 18세기 후반에 태어나 성장한 경화세족과 중인층에 의해 ‘고급화/전문화’가 이루어지던 시기다. 그 과정에서 남공철이나 심상규 등의 예에서 보듯 ‘개인의 취향이 투사된 개인적 공간’이 의미 있는 문학 공간으로 형상화되고, 본고에서는 언급하지 못했지만 個性性과 審美性이 두드러진 조희룡의 『호산외기』와 같은 저작은 이후 중인 전기집의 典範으로 자리잡던 시기이기도 했다.⁴⁵⁾ 19세기 전반기는 한문학의 ‘고급화/전문화’ 과정에서 個我에 주목하기 시작한 시기라 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문제는 ‘속화/저변화’의 주체를 밝히는 일이다. 일부 경화세족들 사이에서는 ‘속화’와 ‘전문화’ 양상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보편적인 양상은 아니었던 듯하다. 즉 ‘속화/저변화’의 주체는 다른 데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전반기 한문학은 고급화, 전문화, 저변 확대가 이루어지는 한편 비록 늦기는 하였지만 더 이상 관념적 대명외리에 사로잡혀 있기보다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자강의 길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풍성하게 축적된 지식 정보를 체계화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후 상층 지식인들은 대체로 고답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역관 등 중인층은 국제 정세의 변화를 민감하게 인식하던 데 반해 사대부 문인들의 시각은 대개 일국적 시각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다.⁴⁶⁾ 문제는 문학 방

45) 한영규, 2006 「중인층 傳記集 《壺山外記》의 성격과 위상」,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73면.

46) 진재교, 2011 「18·19세기 동아시아와 知識·情報의 메신저, 譯官」, 『한국한문학연구』 47, 한국한문학회, 134면.

면에서도 19세기 후반 지식인들은 새로운 양식의 모색에 거의 힘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이다.⁴⁷⁾ 아직 내재적인 변화의 추동성이 부족했던⁴⁸⁾ 구한말 한문학계를 역동적인 국제정서는 기다려주지 못하여 결국 19세기에서 20세기로 전환되는 근대전환기에 오랜 기간 이땅에 이어져 뿌리내린 한문학은 사실상 종말의 운명을 맞게 되었다. 20세기 초반 들어 한문학을 재건해보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이미 한문은 구시대의 유산이 되어버린 상황이었고 그 재건 움직임이 새 시대에 걸맞는 양식이나 시대정신을 담을 수 있는 진지한 담론까지 나아가지 못한 채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는 등⁴⁹⁾ 구태를 면치 못하여 회생 불가한 길을 걸었다.

본고는 19세기 한문학에 대해 전혀 새로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학계에서 이루어져 온 19세기 전반기 한문학에 대한 논의를 대략적으로 정리하고 있을 뿐이다. 커다란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라 논의가 성글고 때로는 실상과 부합하지 못하는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제5장에서 순조조 관각문인 구체적 예를 충분히 들지 못한 점은 필자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다. 차후 별고를 통해 그 문제를 예각화하여 다룰 수 있는 날이 있기를 기대한다.

논문투고일(2017. 11. 1), 심사일(2017. 11. 17), 게재확정일(2017. 12. 4)

- 47) 가령 근대전환기의 대표적인 문학가 修堂 李南瑋(1855-1907)가 특히 힘써 구사했던 문체는 신하가 임금에게 진언하는 '奏議'였다.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주의를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그의 보수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셈'이고 그가 '구지식인으로서 구문학의 규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임형택, 2002 「수당 이남규와 그의 奏議에 대한 이해」,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328-329면 참조.
- 48) 19세기 중후반의 총집류 간행을 주도한 것은 사대부 계층이 아닌 중인 계층이었다. 오경석의 아들 오세창이 부친에 대한 회고에서, 역관이었던 오경석이 풍전등화처럼 위태로운 형세를 타개할 방안으로 '양반 자제의 육성'을 들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즉 중인층이 주체가 되어 변혁을 시도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상황에 실제 정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던 사대부 계층에서는 개혁 의지가 미약했음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성혜, 앞의 논문, 166-167면 참조.
- 49) 일제강점기 한문학에 대해서는 이종묵, 2005 「일제강점기 한문학 연구의 성과」,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참조.

참고문헌

1. 자료

- 金魯謙, 『性庵集』, 규장각 소장본.
 南公輓, 『金陵集』, 한국문집총간 272.
 洪翰周, 『智水拈筆』, 아세아문화사 영인본.

2. 논저

- 강명관, 2007 「이덕무 소품문 연구」, 『안쪽과 바깥쪽』, 소명출판.
 고미숙, 1994 「19세기 시조의 대중화 양상에 대한 연구」, 『시조학논총』 10, 한국시조학회.
 김명호, 2008 『환재 박규수 연구』, 창비.
 김성진, 1998 「朝鮮後期 文人들의 生活相과 小品體 散文」, 『한국 고문의 이론과 전개』 (김도련 편), 대학사.
 박무영, 2001 「金浩然齋의 생애와 ‘호연지유고」,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_____, 2008 「19세기 한문학의 계열과 논점」, 『한국한문학연구』 41, 한국한문학회.
 신병주, 2014 「조선후기 백과사전의 저술과 《五洲衍文長箋散稿》」, 『진단학보』 121, 진단학회.
 심경호, 2000 「19세기 한시의 전개에 대한 일 고찰」, 『한국문학연구』 1, 고려대 한국문학연구소.
 안대회, 2010 「조선후기 연행을 보는 세 가지 시선」, 『한국실학연구』 19, 한국실학학회.
 안순태, 2010 「정조 연간의 文衡 연구」, 『한문고전연구』 20, 한국한문고전학회.
 _____, 2015 「〈열녀춘향수절가〉의 漢詩 語句 활용양상 연구」, 『한국한시연구』 23.
 _____, 2015 『남공철 산문 연구』, 월인.
 _____, 2017 「남공철의 연행 체험과 대청의식」, 『국문학연구』 36, 국문학회.
 이성혜, 2014 「19세기 새로운 지식인의 출현-오경석론」, 『동양한문학연구』 38, 동양한문학회.
 이종묵, 2005 「일제강점기 한문학 연구의 성과」, 『한국한시연구』 13, 한국한시학회.
 _____, 2008 「조선후기 경화세족의 주거문화와 사의당」, 『한문학보』 19, 우리한문학회.

- 이종묵 편, 2011 『관암 홍경모와 19세기 학술사』, 경인문화사.
- 이현일, 2010 「19세기 한시의 소품취」, 『한국한시연구』 18, 한국한시학회.
- 임형택, 1995 「18-19세기 예술사의 성격」, 『한국학연구』 7, 고려대 한국학연구소.
- _____, 2002 『한국문학사의 논리와 체계』, 창작과비평사.
- 진재교, 2011 「18·19세기 동아시아와 知識·情報의 메신저, 譯官」, 『한국한문학연구』 47, 한국한문학회.
- 한양대 한국학연구소 편, 2006 『19세기 조선 지식인의 문화 지형도』, 한양대 출판부.
- 한영규, 2006 「중인층 傳記集 《壺山外記》의 성격과 위상」, 『고전문학연구』 29, 한국고전문학회.
- _____, 2011 「19세기 경화사족의 學藝 취향과 晚明思潮」, 『인문과학』 48, 성균관대 인문과학연구소.
- 허 방, 2016 「철종 시대 연행록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황재문, 2007 「《대동시선》의 편찬경위와 문학사적 위상」, 『진단학보』 103, 진단학회.
- 황정연, 2015 「金祖淳을 통해 본 19세기 安東金門의 골동서화애호와 감상 풍조」, 『대동한문학』 43, 대동한문학회.

Abstract

A Study on the Features of 19th century Chinese literature in Joseon朝鮮

An, Soontae

This paper examines what kind of aspect of the 19th century classical Chinese literature of Joseon succeeded or intensified in the previous period, or what kind of new aspect it became, through the example of Kyunghwasejok 京華世族.

In this paper, four major features of the 19th century Chinese literature are examined. First, ‘popularization / degradation’ and ‘high-quality / specialization’ have deepened. The former appeared to be a phenomenon in which Chinese poetry phrases were actively inserted into the popular literature such as pansori and novels, and the latter appeared as a high-quality artistic theory such as that of *Kim Junghee* and *Shinui*. Those who led the creation and enjoyment of Chinese literature at the time were the Kyunghwasejok, and the latter characteristics can be identified mainly in the literature of the Kyunghwasejok such as *Nam Gongcheol* who had aimed for the elegant flavor. This characteristic of art and literature in the nineteenth century can be said to be an intensification of characteristics that appeared in the previous period rather than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19th century.

Second, the interest in the private realm has expanded. In the case of *Nam Gongcheol*, for example, he enjoyed the hobby of collecting classical works that he enjoyed from his youth when he was in the midst of the 19th century. In addition, *Shim Sangkyu's Gaseonggak* 嘉聲閣, as seen in the construction of the historical area, enjoying a personal hobby life appeared in the literature began to be shaped.

Third, it is a change of consciousness about the *Qing* 清 Dynasty.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re were still people who insisted on the Daemyungui 大明義理 theory, and they did not abandon Daemyeongui 大明義理 theory at a level that did not put the ideological

proclamation. However, in a rapidly changing international situation, there are growing voices that it is no longer possible to hang on to the theory of prosperity, which leads to the stage of discarding the ideology theory.

Fourth, the encyclopedic documents has reached its peak. The tradition of publishing the encyclopedic books from the previous period has reached its peak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the nineteenth century, the background of this collective frenzy is as follows. First, the influence of the academic atmosphere of the *Qing* 清, which had been published in numerous documents. Secondly, there is interest in the trivial thing that flourished in the collecting classical works of the 18th century. Third, there is a tendency to systematically organize the books in the nineteenth century, when the amount of book was accumulated. However, it is meaningful that the publication of these total documents expanded the outline of Chinese literature, but it has limitations that can not be reached to the search of the way of Chinese literature in the changing age.

As mentioned above, what can be said to be characteristic of the 19th century Chinese literature in Joseon is usually the aspect of inheriting and deepening the previous period. Rather than criticize Chinese literature in the nineteenth century as a retirement, it is necessary to take a closer look at these aspects and to emphasize its significance. It is also necessary to be aware of the limitations of the spirit of the times and the limitations of Chinese literatur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Key words : 19th century, Kyunghwasejog, Nam Gongcheol, an encyclopedia, aspect for the Qing Dynasty, private area, popularization, degradation, advanced, specialization